

숨막히는 미세먼지... 건강도 '도·농 차별'

전남, 호흡기 질환 취약한 노령인구 많은데 '도시대기측정망' 17개 시·군에 설치 안 돼

도 "6개 시군에 연내 설치"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장비 설치 비율이 도시·농촌간, 지역간 차별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은 전국에서 호흡기 질환 등에 취약한 노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데도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도시대기측정망 설치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 바른정당 황영철(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의원 등에 따르면 전국의 전체 시·군·구 가운데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장비가 하나도 없는

곳은 81곳에 이른다.

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35.4%에 해당하는 81개 시·군·구에 도시대기측정망이 없었다. 또 이미 설치된 측정망 264개 중 42.8%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 운영되고 있었다.

시·도별 설치율에서 전남이 22.7%로 가장 낮았고, 충남 26.7%, 강원 27.8%, 경북 30.4%, 경남 38.9% 순이었다. 반면 서울과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울산 등 대부분의 대도시 자치단체는 설치율 100%를 보였다.

전남지역은 22개 시군 중 5개 지역에만

설치돼 있으며 그나마도 동부지역과 산단 지역에 편중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군별로 목포 2기, 여수 5기, 순천 4기, 광양 4기, 영암 1기 등이며, 오염물질 측정 항목은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등이다.

나머지 나주시와 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무안·함평·영광·완도·진도·신안·장성군 등 17개 시·군에는 도시대기측정망이 설치돼 있지 않다.

미세먼지측정 장비가 없을 경우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측정을 위해 인접 시·군의 자료를 참고해야 하지만, 전라·강원·충청·경상 등 농촌지역은 장비가 없는 지역이 대다수다. 사실상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셈이다.

그나마 '전국을 대표하는 건강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장성군의 경우 올해 주요 군정 과제로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정하고

대기오염측정소 연내 설치에 나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장성군은 올해 1억9500만원(국비·군비 각각 50%)을 투입해 지역 대기오염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 시운전 및 대기오염측정소를 오는 11월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 건강이 우선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미세먼지 대책 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도시대기측정망이 없는 나주, 장성, 담양, 해남, 영광, 신안 등 6개 시·군에 추가 설치하고, 나머지 대기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11개 시군에는 오는 2018년까지 모두 설치하기 위해 국비 등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함에 따라 마스크가 야외 생활 필수품이 되고 있다. 광주시 서구 풍암저수지 주변 산책로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법정 거짓말 큰 코 다친다

광주지검, 위증 사범 30명 적발·4명 구속

방어권 남용자 소송비 부담도

광주지검이 거짓말로 법정질서를 어지럽힌 위증사범을 대거 적발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방어권을 남용한 자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엄중 조치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장성철)는 "올해 상반기(1~6월) 집중 단속을 해 위증 사범 30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검사 2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담수사관을 배치해 위증 사범을 집중 단속했다. 이들 대부분은 가족, 친구, 지인이 연루된 사건에서 부탁 등을 받고 거짓증언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되고 B씨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34)씨는 지난 2월 지인인 한 여성(23)을 성추행했다가 피해자 신고로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피해자와 함께 자리에 있었던 지인에게 돈을 주며 회유했고,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언으로 무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르게 증언한 사실에 주목, 수사를 통해 거짓 증언을 강요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을 남용한 피고인 47명도 적발해 이들에게 국선번호인 보수와 증인 여부 등 총 1797만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범행을 부인하며 총 10회 기일 동안 6명의 증인신문을 하게 한 무고사범 E씨에게 88만5200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판결선고를 이끌어 냈다. 또 폭행사실이 명확함에도 범행을 강력히 부인한 F씨에게 20만8000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횡간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해 놓고도 단속 경찰에게 책임을 떠넘긴 G씨에게는 41만2000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히 방어권 남용 사범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부담 의견을 적극 펼쳐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 앞바다 어선 엔진고장 표류

해경, 긴급 출동 8명 모두 구조

여수 앞바다에서 8명을 태운 어선이 엔진고장으로 표류하다 긴급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3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여수시 삼삼면 상백도 남동쪽 13.5km 인근해상에서 선장 김모(53)씨가 운항하던 68t급 D호(남해선적)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엔진 클러치 고장으로 표류했다.

여수해경은 경남 삼천포어업정보통신국으로부터 사고를 접수한 후 300t급

경비함을 신속히 사고현장에 급파해 구조했다. 사고 해역에 도착한 해경은 예인줄로 D호와 경비함을 연결해 이날 낮 12시30분께 거문도 인근 안전해역까지 예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태풍 난파물이 부상하고 있어 조업중이거나 항해 중인 선박에 대해선 기상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안전해역으로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 상포매립지 인허가 관련 여수시청 압수수색

여수경찰, 도시계획과 등 5곳 관련 공무원들도 소환 계획

여수 돌산 상포매립지 인허가 관련 의혹을 수사중인 여수경찰이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여수경찰은 3일 "이날 오전 직무유기 협

의로 여수시 도시계획과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문서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돌산상 상포 매립지는 지난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 용도로 바다를 매립해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은 곳이다.

여수시는 전남도 준공인가를 받은 S사

에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9차례 공문을 발송하는 등 당시 조건부 이행 약속을 촉구했지만 법정부동산 등 경영 악화로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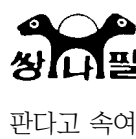
S사는 이후 법정부동산을 벗어나면서 경영상태가 개선됐으며, 지난 2016년 2월 여수시에 도시계획 인가 신청을 통해 같은

해 4월 조건부 승인을 취득하고 부동산 개발사인 P사에 소유권을 이전에 택지개발을 재개했다.

여수경찰은 택지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여수시가 개발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택지개발 업체인 P사 대표는 회사 돈 48억원을 횡령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다./*박진표기자 lucky@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스마트폰·게임CD 등 판다" 속여 1970만원 '꿀꺽'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서 스마트폰이나 축구경기 표 등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2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

○...3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상습 사기범인 김모(28)씨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최신형 스마트폰 등을 싸게 판다고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 79명으로부터 197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

○...김씨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한정판 게임 CD·청소년월드컵 16강표 등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물품의 판매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에서 "빼앗은 돈은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썼다"고 진술. /나주=서충열기자 scy@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풍암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대지 400평
건물 100평
매매가 17억

치평동 중심상가
일반물건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3억

신안동 주상복합상가
전남대정문인근 (1층,2칸) 일반물건

건물 32평
매매가 3억5천
(용자2억5천, 보증금5천, 월143만원)

【법원 경매/공매】

| 토 지 | 공 장 |
|--|---|
|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지역 도로점 소촌제인근 토지 192평 감정가 121,000,000 최저가 121,000,000 | ▶장성 서삼면 송현리 내연마을인근 계획관리 지역취락지구 토지 1361평 건물 372평 감정가 938,000,000 최저가 526,000,000 |
| ▶곡성군 고달면 두거리 신234 토지 11,970평 감정가 44,000,000 최저가 44,000,000 | ▶북구 지아동 지산초등학교인근 토지 678 건물 222평 감정가 1,057,000,000 최저가 1,057,000,000 |
| ▶나주 봉황면 황룡리 생산관리지역 과수원 반암마을인근 토지 3251평 감정가 270,000,000 최저가 216,000,000 | ▶나주 다시면 월태리 원동마을내 토지 754평 건물 325평 감정가 591,000,000 최저가 414,000,000 |
| ▶신안군 중도면 방축리 계획관리지역 콘도로점 해안가 토지 1200평 감정가 103,000,000 최저가 103,000,000 | |
| ▶고흥 풍양면 매곡리 바닷가인근 대로점 학교부지 토지 1006평 감정가 58,000,000 | |

근 린 시 설

▶서구 생촌동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사무실 8m도로점
토지 168평 건물 86평 **감정가 493,000,000 최저가 493,000,000**

▶남구 송화동 광주대 인근
토지 138평 건물 492평 **감정가 1,227,000,000 최저가 859,000,000**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오양병원
토지 3493평 건물 1734평 **감정가 49억 최저가 1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